

“88년 포교 결실, 나눔과 화합으로 회향”

창원 구룡사, 10월 27일 창건 88주년 기념 법회

도심 포교의 효시 통도사 포교당 창원 구룡사(주지 신공)가 창립 88주년을 맞아 포교원력을 굳건히 다지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연다.

구룡사는 10월 17일 오전 10시 구룡사 설립법전에서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을 초청 법사로 창건 8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구룡은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총 3000만원으로 구룡사 신도 대학생,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불교학 전공 중인 학인 스님, 지역 저소득층 성적 우수 대학생, 해밀 대안 학교 후원금 등이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신도들의 심사일만 모금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다.

아울러 구룡사는 법회 시간 동안 ‘어린이·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연다. 구룡사 어린이회 및 반야청소년회,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구룡사가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룡사의 신행단체 바라밀선다회는 두리차회를 경내에 마련한다. 아울러 선다회 졸업생 시연이 오후 2시 설립전 내에서 진행된다. 원광다법, 접비다레다법, 영통팔자다법 등 다양한 다도 시연으로 품격 높은 차 문화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경내에는 바라밀 꽃꽂이회에서 ‘구룡산사의 가을정원’이라는 주제로 꽃꽂이 작품 전시회도 마련된다.

특히 지역민들을 위한 자리로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제3회 가을달빛 산사음악회’가 오후 7시 열린다. 국악팀 피네, 성악 혼성중창단 프렌즈, 우담바라합창단, 가수 김찬디 등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포교로 큰 역할을 펼치고 있는 부산 쿠무다 주지 주석 스님의 사회가 어우러져 산사를 찾은 이들을 반긴다.

1927년 구하 스님 원력으로 창건 지역민·신행단체 하나되길 서원

주지 신공 스님은 “주지를 맡고 ‘지역 사회 소통’과 ‘신행단체의 조직화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학금, 산사 음악회, 김장 나누기, 추석맞이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찰운영위원을 따로 구성하고 역할을 강화했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창건 기념법회는 포교 원력과 방향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88주년을 맞은 구룡사내 전경. 10월 17일부터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구룡사는 공할이므로 신도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 창원 포교당인 구룡사는 1927년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됐다. 창건 이후 1984년에는 화재로 법당이 전소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2006년 현 주지 스님인 신공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를 진행해 현재 안산당 요사채, 설립전 관음불상개금불사, 교육관 건립 불사를 발원하며 인근의 땅 천여 평을 매입했다. 이어 2012년부터 창건 기념법회 및 장학금 수여,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도 펼치고 있다.

현재 창원 구룡사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이 활동하며 유마거사회, 우담바라합창단, 반야어린이회, 바라밀 선다회 등 다양한 신행단체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구룡사 불교대학은 매년마다 2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인재 양성에 앞장서며 창원시내에 뛰어난 신도회 조직 활동으로 모범적인 사찰로 손꼽힌다.

주지 신공 스님은 “앞으로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족 같은 곳, 감동을 주는 사찰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전통문화 전승 위한 ‘팔공산 승시’ 열린다

10월 7~11일 동화사 일대에서 개최

전통문화의 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6회 팔공 승시축제’가 열린다. 팔공산승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덕목)는 10월 7~11일 동화사 일대에서 ‘제6회 팔공 승시축제’를 연다.

‘만남, 나눔, 소통, 화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승시축제에서는 5일간의 본행사 외에 국화축제관을 열어 10월 한달간 시민들에게 가을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승시축제는 10월 7일 오후 5시 대한불자가수회 대구경북지회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8일 법요식이 진행된다. 이어 나현아, 권미희, 동화사합창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9

일에는 스님들로 구성된 우담바라밴드와 선무도, 정행 스님, 파란소리, 북한공예예술단이 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상에, 인드라 스님, 권미희, 남상일 등이 만드는 국악음악회도 11일 열린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초등학생 씨름대회, 전통등 전시, 법교대회, 인경체험, 사찰음식경연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승시봉행위는 “사찰이 갖는 문화와 시장이 갖는 교류를 결합시켜 잊혀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대중화를 넘어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파라미타,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 합창제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합창제가 개최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0월 10일 오전 10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한다. 대상 1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금상 2팀에게는 부산광역시시장상과 상금 150, 은상 2팀에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상과 상금 100만원, 동상 3팀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상과 상금 7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어 지도교사를 위한 상과 상금도 준비된다.

이번 합창제에는 김해여자중학교 아델리아합창단, 부산진여자고등학교의 해연합창단 등 총 13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파라미타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10월 10일 오전 10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합창제 모습

재능을 발휘 할 기회를 제공하며 심성을 맑히고 합창을 통해 협동과 단결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신라 천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10월 8~11일 경주 일대에서 ‘2015 에밀레전’ 개최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BBS불교방송과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조직위원회는 통일신라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을 주제로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을 개최한다.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알리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해 열리는 에밀레전은 올해 4회째를 맞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축제는 ‘에밀레 모형종 타종’, ‘에밀레 주재관’, ‘신라 문화체험 마당’, ‘신라 간등회(看燈會)’,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성덕대왕신종을 디지털로 복원해 처음 선보인다.

‘에밀레 주재관’은 30여 평의 기와집으로 조성되며 6개의 신라시대 범종 모형을 전시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 표면의 기록물인 명문 해석과 문양 설명 등을 전시한

다. 또 성덕대왕신종의 특징과 과학성, 구조조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신라문화 체험 마당’은 성덕대왕신종 비전상 탁본 및 인경 체험, 신라 금판 만들기, 신라 왕과 왕비 옷 체험 등 뜻 깊은 배움과 즐거움 체험하는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라 간등회(看燈會)’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로 대형 공작등과 용(龍)등, 황룡사 9층 모형탑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함께 은은한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디지털 성덕대왕신종’은 높이 4m, 최대 지름 2.5m 크기로, 신종의 ‘백날이 현상’을 화려한 LED 영상으로 표현한다. 지난 8월 국립대구과학관이 국내 최초로 조성한 디지털 성덕대왕신종과 비슷한 크기이며, 대구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6개 디지털 영상 역시 과학관의 협조를 얻어 축제장에서 재생하게 된다. 또



2014년 열린 ‘신라 에밀레전’ 중 어린이 합창단 공연 모습

불교방송이 에밀레전의 설화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약 1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도 디지털 신종을 통해 방영한다.

4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은 에밀레전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힘들기 때문. 매년 행사 때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축제기간 매일 오후 3시 특별한 힐링 콘서트도 개최된다. 비천무, 선무도, 사찰학춤 등이 무대에 오르고, 지역 대학의

노래와 댄스 동아리들도 흥겨움을 더하게 된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민족음악단, 캄보디아 민속무용단 등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무대공연도 에밀레전에서 접할 수 있다.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의 공식 개막식은 10월 9일 오후 6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불교사 회주 성타스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에밀레 주재관’이 선보인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제 3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불자의 밤

부산 사하구 지역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위해 사하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나선다. 부산사하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10월 8일 오후 6시 약수사 사찰 내 산림공원에서 ‘제3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한다. 사하구불교연합회 소속 23개 사찰에서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이경훈 사하구청장, 노승중 사하구의회위원장 및 사찰 신도와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는 제1부 식전 행사로 체리동산 우당탕, 살풀이 검무, 달마 포퍼먼스가 펼쳐진다. 이어 2부에서는 뮤지션 피네의 공연으로 문을 열어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의 봉행사 및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진다. 놀이한마당으로 진행되는 3부는 흥은사 성각 스님의 색소폰 연주, 가수들의 무대, 화합 놀이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사하불교연합회는 10월 8일 오후 6시 제3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음악회 모습

사하불교연합회는 “지역민들을 무료 급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 뿐 아니라 사하구민들을 위한 한마당도 개최해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화합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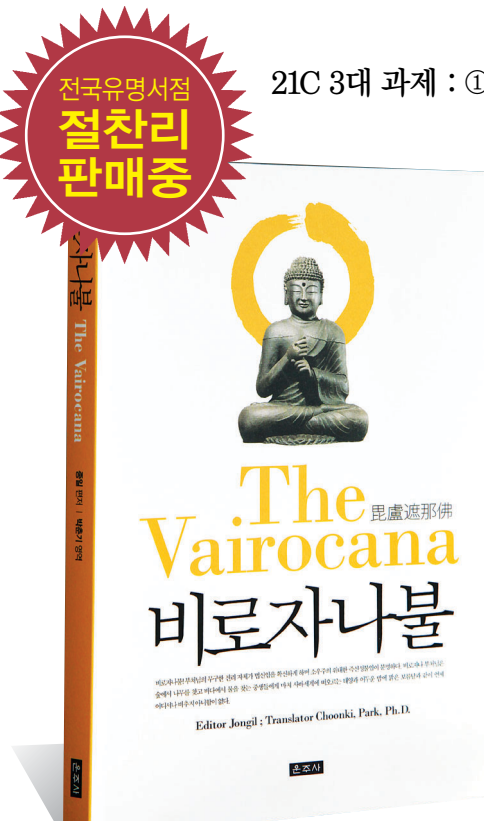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릉고당리 473-2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람람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이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